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중동 불안에도 미국 증시 상승(ft.SK하이닉스)

- 미국증시 상승: 다우 +0.29%, 나스닥 +0.29%
-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13% ↑
- 트럼프 “휴전 끝났다”..이란 “호르무즈 재봉쇄”

Summary

미국증시 장 중 혼조..반등 마감

7월 10일 금요일(현지시각)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과의 휴전 종료 재확인으로 하락하기도 했지만 협상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가운데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무난히 소화하며 이틀 연속 상승. 기술주 이외에도 의료건강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상승했으며 특히 소재 업종이 1.12%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음.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9% 상승한 52,637.01에 이날 거래를 마침. S&P500 지수는 0.42% 상승한 7,575.39에 거래를 마쳤고 나스닥 지수는 0.29% 상승한 26,281.61에 마감함. 나스닥100 지수는 0.33% 상승했고, 러셀2000 지수는 0.49% 하락.

변동성지수 VIX는 5.11% 하락, 15.03에 마감.

(다우 +0.29%/ S&P500 +0.42%/ 나스닥 +0.29%/ 러셀2000 -0.49%)

주간으로는 다우지수가 5주만에 약세 전환 0.5% 하락했고, S&P500지수는 1.23% 상승해 2주 연속 상승. 나스닥지수도 2주 연속 상승, 주간 수익률 1.74%를 기록.

SK하이닉스 ADR 나스닥 상장

SK하이닉스는 이날 티커 SKHYV로 나스닥에 미국 주식 예탁 증서(ADR)를 상장. 전일 공모가를 149달러로 확정한 SKHYV(임시 티커. 13일 정식 티커 ‘SKHY’로 전환)는 이날 시초가 170달러를 형성한 뒤 장 중 177달러까지 올랐고 오후 들어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168.49달러에 거래를 마침. 이는 공모가 대비 13.08% 높은 수준으로 원화로 환산하면 한국 보통주 1주당 약 252만 8천원으로 전일 한국 거래소 종가 218 대비 약 16% 높은 수준. 마감가 기준 SK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 달러에 근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약 1조 1천억 달러를 추월함.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를 인용해 SK하이닉스 ADR이 나스닥 첫 거래 시작 30분 만에 5,200만주 넘게 거래됐다고 전함. 이날 하루 전체 거래량은 1억 6,000만주 가량으로 전체 거래량의 절반 가량이 거래 시작 30분 안에 몰림. SK하이닉스 ADR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이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요인이 됐으나 SK하이닉스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락하는 등 종목별 영향은 달리 반영됨.

이번 공모는 ADR 1억 7,790만주 발행 기준, 265억 달러로 확정됐으며 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는 2014년 알리바바를 넘어 역대 최대 규모. 조달된 자금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에 31조 1,960억원, 청주 패키징 팹 건설 및 장비 부대 비용에 19조원, EUV 스캐너 취득에 11조 9,497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으로 대부분 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상태.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기업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으나 SK하이닉스는 “이번 상장은 평가 격차 완화를 위한 자본시장의 구조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실제 평가 수준은 사업 성과와 글로벌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힘. 최태원 회장은 이날 블룸버그와 CNBC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더는 과거와 같은 ‘경기 순환형 산업’이 아니라고 진단하기도.

한편 당사는 SK하이닉스 ADR의 내년 9월 정기 변경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편입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참고: ‘출격 SKHY US’, 김영건, 6/25) ADR과 본주는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 격차를 유지하며 동행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SK하이닉스 ADR이 편입 가능한 ETF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을 편입하는 ETF,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이머징 지수 추종 ETF, 그리고 테마형 ETF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SMH US, SOXX US, QQQ US, AVEM, BAI US, AIQ US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참고: ‘SK하이닉스 ADR 상장, ETF 수급 효과 기대’, 윤재홍, 6/25)한 바 있음.

트럼프 “휴전 끝났다..대화는 지속”

이번주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이란이 협상을 계속할 것을 요청해왔고 우리는 이에 동의했다. 다만 미국은 그들에게 휴전이 끝났다는 점을 어떠한 오해의 여지도 없도록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힘.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란과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 MOU(양해각서)는 끝난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날 이 발언을 거듭 확인한 것.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뒤 시장은 낙폭을 확대해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 중 1%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음. 다만 ‘휴전 종료’라는 워딩보다 ‘협상 지속’이라는 워딩에 주목, 저가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되며 반등했고 마감까지 주요 지수 고른 반등세를 유지하며 거래를 마침. 국제유가도 하락세를 유지함.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 역시 미국과 이란 양측을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물밑 중재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 전 최고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이 마무리된 것도 재협상 본격화에 대한 기대를 높임.

이란 “호르무즈 재봉쇄”-미국, 추가 공습

다만 토요일 이란이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을 공격했고 이후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추후 통보 시까지 폐쇄한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미 중부사령부는 미사일과 드론 발사장, 해군 자산, 탄약고 등 약 140여개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3차 공습을 단

행함. 이란 역시 일요일 새벽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에 미사일과 드론 보복 공격을 감행하는 등 주말동안 추가적인 군사 충돌 소식이 이어져 협상 지속에 대한 기대 한편 본격적 전면전 재개/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상존. 이에 지난주 하락했던 유가가 월요일 아시아장에서 반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번주 'CPI, 연준 의장 입, CMXT, 금통위'에 주목

이번주는 미국에서 14일 발표될 6월 CPI(소비자 물가지수)와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의 취임 후 첫 의회 증언 등이 예정돼 있음. 이르면 9월 FOMC에서의 25bp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적지 않은 가운데 물가 지표의 방향성과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 통화정책 방향성에 대한 인식은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앞서 전달 발표된 5월 CPI는 1년 전에 비해 4.2% 상승해 2023년 4월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바 있으며 클리블랜드 연준의 물가 예측 모델 기준 6월 CPI 예상치는 3.92%로 부담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기업 실적 발표도 본격화될 예정으로, 주중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웰스 파고, 씨티 등의 대형은행과 ASML, TSMC 등의 글로벌 반도체 장비/파운드리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음. 팩트셋은 2분기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23.3%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중국 D램 업계 선두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커창반 상장 절차를 공식 개시한 가운데 오는 1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할 예정.

한국에서는 16일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으며 대다수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 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가운데 관심은 이후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맞춰질 것으로 보임.

특징종목

희비 엇갈린 반도체주

이날 나스닥에 화려하게 데뷔한 SK하이닉스(+12.76%)는 AI 메모리 투자 열기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킴. 다만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SK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으로 반도체 업종 내 수급이 상장 초기 SK하이닉스에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자극하기도. 실제 이날 반도체 종목들은 종목별로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임. SK하이닉스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24%)가 하락권에 머물렀고, 이 외에도 브로드컴(-0.28%), 인텔(-2.40%), 마벨 테크놀로지(-3.07%), 퀄컴(-1.02%), 램 리서치(-0.80%) 등이 하락함.

엔비디아(+4.03%)는 핵심 협력사 SK하이닉스가 상장을 전후로 높은 관심을 받았고 최대 원 SK그룹 회장이 AI 인프라 확장의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을 재료로 강하게 상승. 이외 AMD(+2.04%), 샌디스크(+3.10%),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2.35%), 시게이트 테크놀로지(+2.27%) 등도 강세 마감.

주요 종목들의 방향성이 다소 엇갈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0.06% 상승에 그침. DRAM(-2.05%), DISK(-0.99%) 등 주요 메모리 ETF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약세를 반영해 하락 마감.

소프트웨어주 혼조

소프트웨어주는 사이버 보안주는 대체로 하락했지만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 오라클(-2.48%), 팰로앨토 네트워크스(-3.67%), 클라우드 스트라이크(-5.66%), 포티넷(-3.80%), 서비스나우(-1.04%), 데이터도그(-4.26%) 등이 하락했고 세일스포스(+0.51%), 어도비(+0.45%), 인튜이트(+0.58%), 워크데이(+0.44%) 등은 상승.

오라클(-2.48%)은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B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힘. BBB- 등급은 투기등급(정크 본드) 바로 윗 단계로 S&P는 "오라클의 성장하는 AI 인프라 사업이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희석하고 있다"며 AI 인프라 사업의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음을 지적.

한편 씨티는, 소프트웨어의 많은 영역에서 경쟁 심화와 장기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물론 1분기 부진 이후 2분기에는 일부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조짐이 보였지만 지출 개선이 소프트웨어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평가함. 특히 AI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현대화 프로젝트에 지출이 불균형적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몽고DB(-5.73%), 스노우플레이크(-2.26%), 팔란티어 테크놀로지(-1.74%), 마이크로소프트(+0.19%), 피그마(-5.17%), 쇼피파이(-0.51%) 등을 선호한다고 밝힘.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비 선호 종목으로는 줌인포 테크놀로지스(-0.68%)와 어도비(+0.44%)를 꼽음.

씨티가 선호주로 꼽은 쇼피파이(-0.51%)에 대해서는 스티펠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스티펠은 이외 클라우드 커뮤니케이션 업체 트윌리오(-1.85%)에 대해서도 AI 투자 사이클의 수혜를 누릴 경쟁력을 갖췄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

헬스케어 대체로 약세

이날은 대부분 업종군이 상승했지만 헬스케어 업종은 대체로 약세. 일라이 릴리(-2.33%), 길리어드 사이언스(-3.72%), 버텍스 파머슈티컬(-2.24%), 모더나(-10.83%) 등 업종 대표 종목들의 낙폭이 컸는데 모더나(-10.83%)는 호흡기 백신 매출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치가 수정 발표되며 주가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써 이번주 예정된 유럽연합의 모더나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구매량 발표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임. GLP-1 계열 약물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라이 릴리(-2.33%)는 지나치게 높은 GLP-1에 대한 실적 의존도, PER 기준 33.4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 등이 최근 주가 추가 상승을 제한하는 부담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크리네틱스 파마슈티컬스(-0.05%) 인수를 발표한 버텍스 파머슈티컬(-2.24%)은 인수 발표 이후 재무적 부담 등

을 반영해 나흘 연속 하락.

이외 특징주

빅테크 기업들은 혼조. 엔비디아(+4.03%)가 SK하이닉스 상장으로 AI 투자 성장 스토리가 재조명되며 강하게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목이 하락, 혹은 강보합권에 머물렀음. 다만 메타 플랫폼스(+5.97%)는 강한 상승세로 한 주간 수요일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일 상승세를 유지. 주간 상승률은 15%에 달해 2024년 초 이후 최고의 한 주를 보냄. 메타 플랫폼스는 오는 9월 자체 AI 반도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AI 비용 구조 개선을 시도 중이라는 로이터 보도 이후 지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뱅크오브아메리카도 메타 플랫폼스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 한편 메타는 주 초 출시했던 AI 이미지 생성 기능 '뮤즈 이미지' 운영을 중단한다고 주말 밝힘. 뮤즈 이미지는 이용자가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태그해 해당 계정의 콘텐츠를 기반으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였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인터넷 그룹(+4.97%)이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암호화폐 전문 신탁 은행 설립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강세. 회사 CEO는 이번 승인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으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

상장 한 달 쯤을 맞은 스페이스X(-4.51%)는 중국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반영하며 하락. 이외 로켓 랩(-1.83%), 아처 예비에이션(-2.47%),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2.92%),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4.71%) 등의 우주 항공 테마 전반이 스페이스X 상장 이후 한 달여간 동반 약세로 상장 전 형성됐던 기대를 되돌리는 흐름.

스페이스X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CEO는 이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한다면 스페이스X의 가치가 지구상의 나머지를 모두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음.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휴전 종료 선언에도 유가는 하락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된 휴전 선언에도 하락.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란이 협상을 이어가자고 요청해왔으며 우리는 이에 동의했지만 휴전은 끝났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힘. 이에 국제유가는 상승폭을 1.5%까지 확대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 내용 중 협상은 지속된다는 점에 주목해 상승폭을 축소, 하락 마감.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유동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유가 하락 폭을 제한함.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93% 하락한 배럴당 71.41달러에 마감. 브렌트유 9월물은 0.38% 하락한 배럴당 76.01달러에 마감.

한편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월간 석유시장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가 이란 전쟁 여파로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 IEA는 올해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며 이는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

면서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 수출이 크게 위축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 보고서는 시장이 점진적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할 경우 회복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함.

국제 금가격은 국채금리 상승에 0.65% 하락, 트로이 온스 당 4,113달러선을 기록했고 은 선물도 1% 가까이 하락. 다만 온스당 60달러선은 지지.

국채 금리는 단기물 중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가격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종료됐음을 재차 확인하면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확대, 그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금리 상승 요인으로 반영됐으며 일본 연기금이 자국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일본 재무상의 발언이 나오며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세는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미 국채 가격 하락(금리 상승) 요인이 됨. 일본은 약 1조 2천억 달러 어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미 국채 보유국임.

2년물 국채 금리는 3.10bp 상승한 4.2079%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00bp 상승한 4.5612%를 기록. 30년물 국채 금리는 0.60bp 하락한 5.0587%를 기록.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는 연준이 이달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30% 초반대로 전장 대비 높여 반영됐으며, 9월 인상 가능성은 60%대 후반대로 상승.

엔 강세..달러 보험

미국 달러화 가치는 보험권에서 소폭 상승. 일본 공적 연금의 국내 투자 확대를 장려할 것이라는 일본 재무상의 발언에 엔화가 강세 폭을 확대했고 달러는 상대적 약세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발언에 달러 인덱스 기준 100.99선까지 급등하기도 했음. 다만 협상을 위한 대화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며 오름폭을 축소, 달러인덱스(DXY)는 0.05% 상승한 100.952를 기록. 달러-엔 환율은 전장 마감 가격 162.404엔 대비 하락(엔 강세)한 161.71엔을 기록.

전일 서울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4.70원 하락한 1,501.40원에 거래를 마친 달러-원 환율은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25원)를 감안시 1.95원 하락한 1,498.20원에 마감.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